

- 주요 뉴스: 美 바이든 대통령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는 증거 보유
 - 美 연준 인사들, 3월 금리인상 지지 및 연내 B/S 축소 예상
 - ECB 정책위원, 인플레이션을 신속히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책조정 필요
 - 美 1월 기준주택 매매 1년만에 최대폭 증가
- 국제금융시장: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주가 하락[-0.7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하락[-3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, 연준 공격적 긴축 우려 등으로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불안으로 0.8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러-우크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강세
유로화가치는 0.3% 하락, 엔화는 0.1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
독일도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4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6.85원, +0.1원) 0.01% 상승, 한국 CDS +1bp

		2/18일	2/17일	전일대비			2/18일	2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48.9	4,380.3	-0.72%	국채 금리 10y	미국	1.93%	1.96%	-3bp
	유럽	460.81	464.55	-0.81%		독일	0.19%	0.23%	-4bp
	중국	3,490.8	3,468.0	0.66%	CDS 5y	한국	28bp	27bp	1bp
	일본	27,122	27,233	-0.41%		중국	54bp	53bp	1bp
	한국	2,744.5	2,744.1	0.02%	위험 지표	EMBI+	-	424	-
환율	달러지수	96.11	95.83	0.32%		VIX	27.75	28.11	-1.28%
	유로화	1.1322	1.1361	-0.34%		WTI유	91.07	91.76	-0.75%
	엔화	115.01	114.94	-0.06%	원자재	구리	452.0	452.3	-0.08%
	위안화	6.3256	6.3384	0.20%		금	1,898.4	1,898.4	0.00%
	원화	1,195.9	1,197.1	0.10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美 바이든 대통령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는 증거 보유

-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 증강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언급
- 美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의 포격전에 대해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도발을 만들어 내려는 러시아의 노력 중 일부라며 비난.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시 강력한 제재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
-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정부군과 반군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. 친러 돈바스 분리주의자들은 접경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여성과 아이들은 러시아로 대피할 것이라고 주장
- 독일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러시아 대규모 병력 증강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, 러시아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촉구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美 연준 인사들, 3월 금리인상 지지 및 연내 B/S 축소 예상

- 뉴욕 연은 총재와 브레이너드 이사는 현재의 강한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며,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 된다면 연내 B/S 축소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
- 시카고 연은 총재도 현 통화정책 스탠스는 잘못돼 있으며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. 다만 올해 물가 압력은 상대적으로 짧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

■ ECB 정책위원, 인플레이션을 신속히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책조정 필요

- 보스티안 바슬러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향후 수년 내 2% 물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ECB는 통화정책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
- 페테르 카지마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는 양적완화의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자산매입프로그램(APP)의 8월 종료를 지지. 다만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점진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

■ 미국 1월 기준주택매매 1년만에 최대폭 증가

- 1월 기준주택 매매건수는 전월보다 6.7% 증가하며 전망치 -1.3%를 대폭 상회.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평가

■ 프랑스, 중증환자 수에 따라 코로나 규제 대폭 완화 시사

- 보건부 장관은 중환자실 입원환자가 1~2천명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(현재 3천여명)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, 백신패스 제도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언급

■ 빌 게이츠, 또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 상당

- 코로나19 위험은 크게 줄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다른 병원체에서 새로운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각국의 투자를 요청

■ JPM, 기업실적 추정치의 상향조정이 급격히 느려지는 것은 불길한 시그널

- 쿼트 전략팀은 글로벌 증시의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조정이 매우 느려지고 있으며,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 경우 증시 변동성이 증가하고 위험/보상의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

■ BofA, 경기침체 우려 증폭으로 주식시장 타격 우려

-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개시하면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며, 기술주 등 주식의 약세전망을 유지하고 현금과 경기 방어주를 매수할 것을 권고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2/1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경기선행지수(전월비): -0.3%, '21년 12월(0.7%), 예상치(0.2%)
- 미국 1월 기준주택판매(전월비): 6.7%, '21년 12월(-3.8%), 예상치(-1.3%)
-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지수(잠정치): -8.8, 1월(-8.5), 예상치(-8.0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